

한·중 서술성 명사의 대조 연구

—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인수진*

목 차

1. 서론
2. 한·중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
 - 1)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
 - 2) 중국어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
3.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대조 분석
 - 1)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유사점
 - (1) 정의와 특성의 유사점
 - (2) 어의의 복잡성
 - 2)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차이점
 - (1) 정의와 특성의 차이점
 - (2) 논항표지의 차이점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중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특히 가깝다는 것을 발견한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대조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언어학 연구의 심층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유사점으로는 1)통사적 측면에서 논항 요구 특성 2)의미적 측면에서 사건·행위·상태 표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언어의 모두 어의(語義)의 복잡성과 다의성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차이점으로는 1)주요 논항이 취하는 논항표지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의 종류와 통사적 특성에 차이점이 있다. 2)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가 명사의 수식을 받을 때, ‘-的’는 생략이 가능한 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논항표지 ‘-의’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언어 간의 대조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정의, 동명사, 대조, 서술성 명사, 특성

1. 서론

본고는 한·중 서술성 명사를 대조 연구하기에 앞서 한·중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를 한국어 서술성 명사로 처리하여 수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의 대조 분석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언어 간 대조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서술어이고 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용언이다. 그러나 어떤 명사가 서술성을 가지고 서술어의 자리에 실현되면, 용언과 같은 기능이 있다. 아직까지 한·중 서술성 명사에 대한 논의는 언어 품사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성 명사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연구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본국의 언어에 한정된 연구뿐만 아니라 양국 언어의 서술성 명사 대조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정의에 대한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포괄적인 정의가 있었다. 이병규(2001)에서 서술성 명사는 문장에서 술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이다. 이때, 술어는 용언의 의미적인 기능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이선웅(2006)에서 서술성 명사는 의미적으로 논항을 요구하고 상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건, 행위, 상

태 등의 의미적 실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서술성 명사라는 명칭이 없고 어떤 학자들은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와 한국어 서술성 명사로 서로 대응되었다. 呂叔湘(1954)에서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는 ‘명사가 쓰이면서 동사적 특성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동사로도 쓰이는 것. 즉, 하나의 단어가 명사와 동사 두 품사를 자유롭게 오가는 현상을 가치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郭銳(2002)에서는 10300개의 동사를 분석하고 품사가 동사와 명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가 2381개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학자들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와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로 서로 대응되었다. 崔允甲(1984)에서 ‘動名詞(동명사)’라는 정의는 처음 제시되었다. 姜銀國(1987:55)은 ‘動名詞(동명사)’는 ‘명사와 동사의 의미와 통사적으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명사 중 하나의 특수한 부류를 말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학계에서는 서술성 명사의 정의에 대한 관점이 비교적 일치하게 정립되어 있는 반면,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 체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와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라는 두 용어가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유사성을 지닌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중 서술성 명사 대조연구의 심화된 발전을 저해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어 서술성 명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한·중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특히 가깝다는 것을 발견한다.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를 한국어 서술성 명사로 처리하여 수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동명사(動名詞)’의 대조연구는 단순히 논항 구조와 문법 특성을 분석했을 뿐 이들의 어떤 방면에서 유사점이 있는지 어떤 방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며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동

명사(動名詞)의 정의와 특성, 어의 복잡성, 논항표지 등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대조 분석해볼 것이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자어가 큰 비중이 차지하기 때문에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높은 사용 빈도로 활용 가능한 어휘들을 선정하며 중국어와 동일한 한자어로 쓰이는 서술성 명사를 선정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언어 간 대조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한·중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

1)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

한국어에서 서술성 명사는 술어명사, 행위성 명사, 동작성 명사 등의 용어로 불리어 왔다. 연구자마다 구체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동일되어 있다.

조용준(1995)에서 서술성 명사는 상적 특성에 따라 형용사성, 자동사성, 타동사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자동사성 서술성 명사는 비능격성과 비대격성으로, 타동사성 서술성 명사는 접미사 '-되다'와의 결합 양상에 따라 분류하였다.¹⁾

- (1) 형용사성 서술성 명사: 박식, 불행, 풍만, 행복, 성실, 다행, 가난.
 자동사성 서술성 명사: 가.비능동성: 자살, 놀음, 운동, 출세, 독서.
 나.비대칭성: 도착, 퇴화, 성장, 교체화, 명중,
 침몰

1) 조용준, 「서술성 명사구의 구조와 논항 실현」,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제4권, 한말연구학회, 1995, p. 30-47.

타동사성 서술어 명사: 가.'되다' 피동화가 불가능한 경우: 배신, 존경,
칭찬, 신뢰, 동정, 저주, 위로, 증오, 사랑.
나.'되다' 피동화가 가능한 경우: 파괴, 해고,
완성, 파손, 수감, 정화, 이동, 폭파, 제거,
임명, 변형, 증산, 개정.

홍재성(1997)에서 술어 명사는 '행위, 상태, 관계,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의 의미가 명사 범주로 나타난 표현이다. 이때, 술어는 사건이나 행위, 또는 상태나 속성, 관계 등을 나타내는 의미적 실체이다'라고 정의하였다.²⁾

이병규(2001)는 술어 명사는 '문장에서 술어의 기능이 있다. 이때, 술어는 용언의 의미적인 기능을 포괄하여 가리킨다'라고 정의하였다.³⁾

(2) ㄱ. 적군의 도시의 파괴

(2)에서 '파괴'가 형태적으로 명사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 이때 '파괴'는 '적군'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에 전형적인 서술성 명사이다.

이선웅(2006)에서 서술성 명사는 '의미적으로 논항을 요구하고 상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의미적 실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다'라고 정의하였다.⁴⁾

(3) ㄱ. 수미의 대학교 생활

나. 이것은 가뭄이다.

(3ㄱ)의 서술성 명사는 서술성 명사구에서 이루어지며, '생활'은 의미적으로 주어인 '수미'와 장소인 '대학교'를 논항으로 삼기 때문에 '생활'은 행위주

2) 홍재성, 「이동 동사와 기능동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2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한국어학당, 1997, p. 121-140.

3) 이병규, 「국어 술어명사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4) 이선웅, 「술어명사와 동사구의 동질성과 이질성」, 『우리말글』 제38권, 우리말글학회, 2006, p. 104.

역 논항 및 장소역 논항구조를 통해 그 구문적 의미를 실현함으로써 서술성 명사로 판단된다. 그러나 (3ㄴ) 중의 ‘가방’은 구체적인 실물로 판단하는 개체로서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술성 명사가 아니다.

최은지(2011)에서 서술성 명사란 명사와 동사의 성격을 공유하는 단어를 말했다. 이러한 단어에 논항구조를 요구하고 ‘-하다’ 또는 ‘-되다’를 붙일 수 있는 동사로 쓰이고 이들은 ‘-하다’ 나 ‘-되다’를 붙이지 않고 특정 언어에서도 술어의 기능도 있다. 예컨대 ‘연구’, ‘공부’, ‘설명’ 등이었다. 주로 한자어로 구성되어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를 이루거나 ‘-되다’, ‘-받다’, ‘-당하다’, ‘-시키다’ 등이 결합하여 수동과 사동의 동사 형태가 되었다.⁵⁾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조용준(1995)이 제시한 형용사성, 자동사성, 타동사성의 분류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다’ 또는 ‘-되다’와의 결합을 통해 동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홍재성(1997)과 이병규(2001)가 강조했듯이,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단순한 명사가 아닌 행위, 상태, 관계 등을 나타내는 술어의 의미적 실체로서 기능한다. 이선웅(2006)의 주장대로,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수미의 대학교 생활’에서 ‘생활’이 주어와 장소를 논항으로 삼는 것과 같이 논항구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가방’과 같은 일반 명사는 이러한 논항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아 명확히 구분된다. 최은지(2011)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하다’나 ‘-되다’의 결합 없이도 술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는 서술성 명사가 명사와 동사의 경계에 위치한 혼종 범주로서, 한국어의 통사론적 및 의미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즉, 서술성 명사는 형태적 정체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한국어의 독특한 언어 현상으로, 이에 대한 보고는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는 ‘명사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문장 내에서 술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어로, 의미론적으로 논항을 요구하며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의미적 실

5) 최은지, 「한국어 학습자의 ‘서술성 명사+접미사’구성 어휘의 오류 양상」, 『이중언어학』 제45권, 이중언어학회, 2011, p. 285.

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다'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조용준(1995)에서 '-하다'와 결합할 수 있으며 서술성 명사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정수(1975), 원대성(1986), 유현경(1994)에서도 같은 관점을 제시하였다.

- (4) 가. *손하다, *주먹하다, *저울하다, *손가락하다.
 나. *기계하다, *현대하다, *과학하다.
 드. 발표하다, 기념하다, 청소하다.

(4가, 나)은 '-하다'와 결합할 수 없는 비서술성 명사이며, (4드)은 '-하다'와 결합 가능한 서술성 명사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다'와 결합 여부를 통해서 서술성 명사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관점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서 '-하다'와 결합해도 서술성 명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계획하다, 가을하다, 노래하다' 등이다. '계획'은 특정 동작이나 행위의 과정을 서술하는 대신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계획'은 '-하다'와 결합해도 서술성 명사가 아닌 일반명사일 뿐이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한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특성에 대한 살펴보겠다. 우선 한국어 서술성 명사가 갖추고 있는 형태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술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명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서술성 명사는 일반 명사의 모든 특징을 가진다.

- (5) 가. 시작이 절반이다.
 나. 한국어 공부를 한다.
 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5)에서 일반적인 명사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즉 형태적으로 조사를 갖춘 형식이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가 통사적 측면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문장 구조와 관련된 논항구조를 요구한다. 문장의 종류나 시제, 서법, 형태 등을 실현시키는 기능은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 ‘-되다’, ‘-시키다’ 등이다. 서술성 명사는 논항 실현 양상에서 통사적 특성을 드러낸다. 논항의 실현을 도와 조사 관형격 조사, 조사 상당 어구들은 모두 논항 뒤에 붙어서 통사적으로 실현된다. 구체적인 요소들로는 ‘-의’, ‘-에 대한’, ‘-에 관한’, ‘-에 의한’ 등이 있다.⁶⁾

- (6) ㄱ. 현지의 고등학생의 생활.
 ㄴ. 현지 씨의 태국에서의 생활.
 ㄷ. 현지의 영화에 대한 칭찬.
 ㄹ. 총장의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주장.

(6)에서는 서술성 명사가 핵 명사로 이루어진 서술성 명사구들이다. 이들 명사구에서는 논항이 조사나 조사 상당 어구들과 결합하여 통사적으로 실현된다. (6ㄱ)에서는 행위주역 논항과 대상역 논항이 모두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실현된다. (6ㄴ)의 행위주역 논항 ‘현지’가 ‘의’의 형태로 실현되고, 장소역 논항 ‘태국’이 ‘에서의’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리고 (6ㄷ)에서의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은 조사 상당 어구로 대상역 논항이 실현된다.

서술성 명사는 의미적 측면에서 논항구조를 필요하는 동시에 사건, 행동, 상태 등 의미 실체의 언어 형식이다.

- (7) ㄱ. 철수의 영어 공부
 ㄴ. 백성의 행복

(7ㄱ)에서의 ‘철수의 영어 공부’는 ‘철수는 영어 공부를 한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공부’는 행위 주체가 학습하는 시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서술성 명사이다. (7ㄴ)에서의 ‘행복’은 상태를 나타내는 서

6) 시아치, 「한·중 서술성 명사의 대조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 18.

술성 명사에 속한다. 그러나 서술성 명사가 위와 같은 측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논항구조가 없으면 서술성 명사인지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특성은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형태적으로 보면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술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명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서술성 명사는 일반 명사의 모든 특징을 가진다. 통사적 면에서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논항구조를 요구하며 의미적 측면에서 논항구조를 필요하는 동시에 사건, 행위, 상태 등 의미 실체를 가지고 있다.

2) 중국어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

초기 연구에서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에 대한 분석은 진행한 학자들은 주로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 정의의 제기와 판별 기준을 집중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들은 呂叔湘(1954), 郭銳(2002)⁷⁾, 許紅花(2004)⁸⁾ 등이다. 그러나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의 대조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후 학계에서는 한·중 서술성 명사에 대한 논의는 언어 품사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되면서 중국어 문법론에는 ‘서술성 명사’라는 명칭이 없지만 한국어 서술성 명사 특징을 분석해 보면,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가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특징과 가깝고 서술성 명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밝혔다(夏琪⁹⁾, 2016). 呂叔湘(1954)에서 ‘名動兼類詞

7) 郭銳(2002): 10300개의 동사를 분석하고 품사가 동사와 명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가 2381개 있다고 밝혔다.

8) 許紅花(2004): 제2언어 학습자의 실용성 관점에서 일부 동사를 ‘兼類詞(겸류사)’로 처리하고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에 대한 예비 고찰을 하였다.

9) 夏琪(2016):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는 통사 및 의미론 측면에서 논항구조에 대한 대조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동일한 논항구조를 갖는 서술성 명사를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구조, 의미, 용법 등이 같아서 명사구의 기본 구조와 논항구조가 똑같다. 부분적으로 유사한 논항구조를 갖는 서술성 명사들을 보면 한국어 두 항목이 중국어에서 본질적으로 한 항목으로 합쳐지는

(명동겸류사)'의 정의를 처음 제시하였다. 명사가 쓰이면서 동사적 특성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동사로도 쓰이는 것이다. 즉, 하나의 단어가 명사와 동사 두 품사를 자유롭게 오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¹⁰⁾

- (8) ㄱ. 书瑾给了我一个满意的回答。
→수진은 나에게 만족스런 대답을 주었다.
ㄴ. 请回答我的问题。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

(8ㄱ)는 명사로, (8ㄴ)는 동사의 품사 성격을 가진다. 형태 변화가 없이 서로 다른 품사를 나타나지만 의미적 측면에서는 연관성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呂叔湘(1954)에서 언급한 '자유롭게 오가는 현상'이라는 정의는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 명사와 동사 사이의 변화는 의미적 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 (8ㄱ)의 '대답'은 명사로서 '수진'이 제시하는 응답의 내용을 지시하는데 (8ㄴ)에서의 '대답'은 동사로서 상대방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대답'이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임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呂叔湘(1954)에서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는 '의미적 측면에서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특정한 맥락과 주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맥락에 따라 같은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

- (9) ㄱ. 这本书的内容很有趣。

경우, 한국어에는 있는 어떤 항목이 중국어에는 없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하나이던 항목이 중국어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등 세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언어간의 차이점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呂叔湘, 「关于汉语词类的一些原则性问题」, 『中国语文』, 第10期, 1954, p. 13-16.

- 이 책은 내용이 아주 재미있다.
 ㄴ. *他正在内容一篇论文。
 →*그는 지금 논문 한 편을 내용하고 있다.

(9ㄱ)에서의 ‘内容(내용)’은 명사로서 책에 담긴 정보나 사상을 말한다. (9ㄴ)에서의 ‘内容(내용)’이 동사로 사용되면 ‘填充内容(내용을 채운다)’ 또는 ‘撰寫内容(내용을 쓴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자연스럽게 않으며 (9ㄱ)에서의 ‘内容(내용)’과 (9ㄴ)에서의 ‘内容(내용)’은 의미론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를 한국어 서술성 명사로 처리한다. 崔允甲(1984)에서 ‘動名詞(동명사)’라는 개념은 처음 제시되었다. ‘動名詞(동명사)’는 대부분이 한자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姜銀國(1987:55-56)에서 ‘動名詞(동명사)’는 “의미와 통사적으로 명사와 동사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명사 중 특수한 부류를 말한다”고 지적했다.¹¹⁾

- (10) ㄱ. 这三个人物代表三种不同的性格。
 →이 세 인물은 세 가지 다른 성격을 대표한다.
 ㄴ. 他是人大代表。
 →그는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이다.
- (11) ㄱ. 大会主席报告了开会宗旨。
 →대회주석은 회의의 취지를 보고한다.
 ㄴ. 他给乡政府写报告。
 →그는 향 정부에 보고를 쓴다.

(10ㄱ)에서의 ‘代表(대표)’와 (10ㄴ)에서의 ‘代表(대표)’는 문장성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0ㄱ)에서의 ‘代表(대표)’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신하여 일을 하거나 의견을 표현한다는 일종의 행위와 동작을 가리킨다. (10

11) 본문(10)(11)의 예문은 姜銀國(1987)에서 인용하였다.

ㄴ)에서의 ‘代表(대표)’는 개인, 단체, 정부를 대신하여 일을 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도록 위임받거나 파견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10ㄱ)에서의 ‘代表(대표)’와 (10ㄴ)에서의 ‘代表(대표)’는 기능적으로 동작과 시사의 관계를 가지므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動名詞(동명사)’로 보인다.

(11ㄱ)에서의 ‘報告(보고)’와 (11ㄴ)에서의 ‘報告(보고)’는 문장성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11ㄱ)에서의 ‘報告(보고)’는 상급자나 대중에게 일이나 의견을 정식으로 알리는 일종의 행위동작을 가리킨다. (11ㄴ)에서의 ‘報告(보고)’는 상관이나 군중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한 공식적인 진술을 의미하며 추상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11ㄱ)에서의 ‘報告(보고)’와 (11ㄴ)의 ‘報告(보고)’는 기능적으로 동작과 내용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動名詞(동명사)’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서술어로 사용될 때 목적어나 보어 등의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도 동사로 쓰일 때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는 별도의 조동사 없이 독립적으로 동사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달리 문법적 지원 없이도 동사로 사용된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 ㄱ. 과학자들이 새로운 현상을 관찰했다.
 ㄴ. 专家们观察到了异常现象。

- (13) ㄱ. 我们计划下周开会。
 →우리는 다음주에 회의를 계획한다.
 ㄴ. 这个计划需要修改。
 →이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

(12ㄱ)에서의 한국어 서술성 명사 ‘관찰’은 목적어 ‘현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 ‘觀察(관찰)’은 목적어 ‘現象(현상)’을 필요한다. 이는 두 언어 간에 모두 서술어 사용 시 논항구조를 요구한다는 유사성을 보인다. (13ㄱ)에서의 ‘計劃(계획)’은 동사로 사용될 때 ‘開會(회의)’를 목적

어로 취하는데, 이는 (12ㄱ)의 ‘관찰’이 ‘현상’을 논항을 지닌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計劃’이 조동사 없이 단독으로 동사 기능을 수행하는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라는 점이다. (13ㄴ)에서의 ‘計劃(계획)’은 관형어 ‘這个’와 결합해 명사로 쓰이며 주어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는 명사로 쓰일 때 조사와 결합하고, 서술어로 쓰일 때 반드시 ‘-하다’ 등의 보조 용언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모두 사건, 행위, 상태의 의미를 포함한다. 반면,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는 문맥에 따라 행위 자체 또는 행위의 주체를 모두 가리킬 수 있어 의미 범위가 더 넓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²⁾.

(14) ㄱ. 두 기업의 협력은 시너지를 창출했다.

ㄴ. 双方的合作取得了成功。

(15) ㄱ. 政府決定改革教育制度。

→정부는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ㄴ. 这项改革受到了欢迎。

→이 개혁은 환영을 받았다.

(14)에서의 한국어 서술성 명사 ‘협력’과 중국어 ‘動名詞(동명사)’ ‘合作(협력)’은 모두 추상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적 의미를 가진다. (14)에서의 ‘협력’과 (14ㄴ)에서의 ‘合作(협력)’은 특정 행위를 명사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동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반면 (15ㄱ)에서의 중국어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 ‘改革(개혁)’은 동사로 사용되어 행위를 나타내며 (15ㄴ)에서는 명사로 쓰여 ‘改革(개혁)’이라는 행위 자체 또는 그 결과를 가리킨다. 이처럼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는 단어 하나가 행위와 행위의 주체 또는 대상을 포괄할 수 있어 의미적 범위가 더 넓으며, 이는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가 주로 행위나 상태

12) 본문(14)(15)의 예문은 沈家煊(2010)에서 참고하였다.

의 개념에 집중되는 것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본고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를 택하여 대조분석하기에 앞서 이 두 중국어 용어와 정의적 차이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의미론적 및 통사적 측면에서 명사와 동사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특수한 명사 범주에 속한다. 이는 문법적 형태가 명사로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내재적으로 동사적 의미 특성(논항 구조, 사건 또는 행위 의미)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반면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는 단일 단어가 문맥에 따라 명사 또는 동사로 자유롭게 기능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즉, 품사 자체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 특징으로, 의미적 연관성은 있으나 통사적 역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研究’는 명사로 ‘연구’, 동사로 ‘연구하다’로 사용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문법적 구조와 의미 측면에서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動名詞(동명사)’가 한국어 서술성 명사로 처리하여 수용하고자 한다.

3.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대조 분석

1)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유사점

(1) 정의와 특성의 유사점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의미론적으로 논항을 요구하며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의미적 실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다. 또한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도 행동, 행위 또는 상태를 표현하고 일정한 술어 기능이 있다. 구체적인 예문을 다음과 같다.¹³⁾

(16) ㄱ. 지영은 영어 공부를 한다. 지영은 책을 읽어 영어 공부를 하였다.

ㄴ. 他正在通过运动来保持健康。

→그는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17) ㄱ. 백성의 행복은 국가의 철학이 아니지만 그것은 국가의 책임과 목표이다.

ㄴ. 他的喜悦源于对生活的热爱。

→그의 기쁨은 삶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16)는 행위와 사건을 나타내는 서술성 명사의 예이다. (16ㄱ)에서의 ‘공부’는 행위 주체가 학습하는 시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한국어 서술성 명사이다. (16ㄴ)에서 ‘그의 運動(운동)’에서 ‘運動(운동)’도 진행 중인 행동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動名詞(동명사)’이다.

(17)는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성 명사의 예이다. (17ㄱ)는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예인데 ‘백성의 행복’ 중의 ‘행복’은 백성이 처한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성 명사이다. (17ㄴ)에서 ‘그의 喜悅(기쁨)’에서 ‘喜悅(기쁨)’도 처한 상태를 나타내는 ‘動名詞(동명사)’이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는 특성의 유사점은 통사적, 의미적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사적 면에서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서술어로 사용될 때 목적어나 보어 등의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도 동사로 사용될 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¹⁴⁾

(18) ㄱ. 书瑾的关于下周的计划。

→수진의 미래에 대한 계획.

ㄴ. 智贤对政治学的研究。

→지현의 정치학에 대한 연구.

13) 본문(16)의 예문은 무아흠(2024)에서 인용하였다.

14) 본문(18)의 예문은 沈家煊(2010)에서 인용하였다.

(18)은 서술성 명사 ‘計劃(계획)’을 핵으로 하는 명사구이다. ‘計劃(계획)’은 의미상 주어적인 논항과 의미상 목적어적인 논항을 갖는다. (18ㄱ)에서 ‘書謹(수진)’이 의미상 주어 기능을 시행하고 ‘-的(-의)’의 형태로 실현된다. (18ㄴ)에서 목적어인 대상역 논항 ‘政治學(정치학)’의 앞에 ‘-對(-에 대한)’와 통합하여 실현된다. ‘-對(-에 대한)’라는 어휘가 들어간 문장도 있으며 특히 ‘-的(-의)’로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 많다고 한다.

의미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모두 사건, 행위, 상태 등 의미를 포함한다.

- (19) ㄱ. 그들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다.
 ㄴ. 双方的合作是關鍵。

(19)에서의 ‘협력(合作)’은 추상적 행위 의미를 표현한다. 문맥에서 사건이나 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유사점이 있다. (19ㄱ)에서의 한국어 서술성 명사 ‘협력’은 단순한 명사적 기능을 넘어 ‘협력하다’라는 동작의 과정과 결과를 함축하며, 마찬가지로 (19ㄴ)에서의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 ‘合作(협력)’도 ‘함께 일하다’라는 행위의 추상화된 개념으로 문장의 서술적 중심을 이룬다. 두 언어 모두 명사 형태로 동적 의미를 포착해 문법적 유사성과 의미적 밀도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2) 어의의 복잡성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어의(語義)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어의(語義)’라는 핵심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의(語義)란 언어 기호가 담고 있는 의미나 내용을 말하며, 이는 어휘, 구, 문장, 심지어 장 전체에 표현되는 정보, 개념, 감정 또는 관계를 포함한다.¹⁵⁾ 潘俊, 張掬嬰 (2024)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가 동사에서 파생되어 명사의 기능을 겸

15) 郭锐, 『现代汉语词类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2002, p. 34-42.

비한 어휘로, 다의성, 추상성과 구체성 표현을 통해 그 어의(語義)의 복잡도가 일반 어휘보다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반 동사는 구체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단순하게 기술하는 반면, ‘動名詞(동명사)’는 동작에서 출발하여 과정, 범주를 거쳐 궁극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이는 ‘動名詞(동명사)’가 단순한 행위 표현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한 개념 구조로 발전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 동사는 신체적·물리적인 동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動名詞(동명사)’는 은유와 환유 등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 점차 추상화되어 간다. 특히 ‘動名詞(동명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정 문화권의 상징 체계나 경제·사회 분야의 전문 용어로 정착되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된다. 즉,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일반 어휘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지닌다. 다음은 예시를 통해 중국어 ‘動名詞(동명사)’가 어의(語義)의 복잡성을 살펴보자고 한다.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해석된다.¹⁶⁾

- (20) ㄱ. 我喜欢游泳。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
ㄴ. 游泳是一项很好的运动。
→수영은 아주 좋은 운동이다.
- (21) ㄱ. 我们需要对这个问题进行调查。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ㄴ. 这份调查报告很有价值。
→이 조사 보고서는 매우 가치가 있다.
- (22) ㄱ. 我正在翻译这本书。
→나는 지금 이 책을 번역하고 있다.
ㄴ. 这是一位优秀的翻译
→이것은 우수한 번역가이다.

16) 吕叔湘, 「关于汉语词类的一些原则性问题」, 『中国语文』, 第10期, 1954, p. 13-16.

(20ㄱ)에서의 ‘游泳(수영)’은 동사로써 운동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20ㄴ)에서의 ‘游泳(수영)’은 그 운동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이다. 마찬가지로 (21ㄱ)에서의 ‘調查(조사)’는 동사로서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며 (21ㄴ)에서의 ‘調查(조사)’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 또는 결과물을 의미하는 명사로 사용된다. (22ㄱ)에서의 ‘翻譯(번역)’은 진행 중인 작업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22ㄴ)에서의 ‘翻譯(번역)’은 통역을 하는 사람이나 직업을 뜻하는 명사이다.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표현에 있어서 추상성과 구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어를 어의(語義) 표현에 있어서 더욱 풍부하게 한다.

- (23) ㄱ. 他正在思考如何解决这个难题。
→그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ㄴ. 她对古代文化进行了深入研究。
→그녀는 고대 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 (24) ㄱ. 他拥有丰富的管理经验。
→그는 풍부한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다.
ㄴ. 他管理着一家大型企业。
→그는 대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23)에서 보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예인데, (23ㄱ)에서의 ‘思考(생각)’은 자체 어떤 특정한 물리적 행위나 실체를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일종의 정신적인 활동이다. 즉 사람들이 뇌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판단하거나 상상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23ㄴ)에서의 ‘研究(연구)’는 문체나 분야를 탐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 및 실험을 의미하는 추상명사이기도 한다.

(24)에서는 추상성과 구체성이 있는 예이다. ‘管理(관리)’는 이 단어는 다른 맥락에서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24ㄱ)에서의 ‘管理(관리)’와 같이 명사로 사용될 경우 능력이나 기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킨다. 그러나 (24ㄴ)에서의 ‘管理(관리)’와 같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구체

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표현한다. ‘協商(협상)’도 마찬가지로 명사로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며 동사로는 진행 중인 협상 활동이라는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처럼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思考(생각)’, ‘研究(연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管理(관리)’ 및 ‘談判(협상)’와 같은 추상성과 구체성이 있는 특징도 포함한다.

한편, 한국어에서 명사와 술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서술성 명사는 어의적으로 복잡한 양상도 보인다. 한국어에서 서술성 명사는 논항구조를 필요로 하며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의미 실체를 갖춘 언어 형식을 가리킨다. 일반명사의 특징과 술어의 특징을 모두 갖는데, 그 어의(語義)의 복잡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어의(語義) 측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태성’과 ‘문맥 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 (25) ㄱ. 수진은 논문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ㄴ. 백성의 행복

- (26) ㄱ. 수진의 생활
 ㄴ. 수진은 대학에서 활기차게 생활을 한다.
 ㄷ. 수진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25)에서는 상태성을 나타내는 예시이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특정 상태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25ㄱ)에서의 ‘고민’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성 명사이며, (25ㄴ)에서의 ‘행복’은 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성 명사이다. (26)에서는 문맥 의존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서술성 명사의 어의(語義)는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6ㄱ)에서의 ‘수진의 생활’은 다양한 맥락에서 생활 방식, 생활 상태, 생활 경험 등을 표현한다. (26ㄴ)에서의 ‘생활’은 수진이 대학에서의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26ㄷ)에서의 ‘생활’은 수진의 새로운 생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다.

高明凱(1987)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가 다양한 의미 관계와 추상 개

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의적 복잡성이 높다고 지적했다.¹⁷⁾ 이러한 복잡성은 표현의 유연성과 풍부함으로 이어지며,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문맥적 추론과 판단이 필수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어의(語義)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고정된 경향이 있으며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보다 어의적 복잡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어의적 이해는 문법 규칙과 형태 변화 등 언어 내부 요인에 더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경우 다양한 어의(語義) 관계를 표현하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추상성과 구체성이 있으며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한다.

2)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차이점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를 대조할 때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이 유사성과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차이점 대조는 여전히 본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중심으로 남아 있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보면 본 논문에는 포괄적인 인식을 더 얻을 수 있고 이 두 언어를 더 잘 이해하며 운용할 것이다.

(1) 정의와 특성의 차이점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정의와 특성에서 유사점이 많은 반면에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낸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통사적 특성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주요 논항

17) 高明凱, 『关于汉语的词类分别』, 上海: 现代汉语参考资料上海教育出版社, 2014.

이 취하는 논항표지의 종류와 통사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

- (27) ㄱ. 현지의 예림에 대한 비판.
 ㄴ. 賢智对艺林的批判。

(27ㄱ)에서의 행위주역 논항인 ‘현지’는 ‘-의’와 결합하여 실현된다. 이는 한국어에서 서술성 명사의 행위주가 일반적으로 논항표지를 통해 실현되는 문법적 규칙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중국어 (27ㄴ)에서의 행위주역 논항인 ‘賢智(현지)’는 뒤에 어떠한 표지도 없이 ‘무표지’형태로 실현된다. 대상역 논항의 경우에도 두 언어 간 차이가 명확하다. (27ㄱ)에서의 대상역 논항인 ‘예림’은 ‘-의’와 ‘-에 대한’과 통합하여 실현되는데 (27ㄴ)에서의 대상역 논항인 ‘藝林(예림)’은 앞에 ‘-對(-에 대한)’표지와 통합하고 뒤에도 ‘-的’표지와 통합한다.

또한,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명사로만 쓰이고 용언으로 쓰일 때 기능동사 ‘-하다’, ‘-되다’, ‘-시키다’와 결합하지만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는 명사로 쓰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는 달리 그 자체로 동사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두 언어 간의 중요한 문법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체계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발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이병규(2001)에서 참고하며 인용하였다.

- (28) ㄱ. 그는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ㄴ. 賢智主张马上动身。
 →현지는 바로 출발하기를 주장한다.

(28ㄱ)과 (28ㄴ)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의 경우 ‘주장’이 기능동사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쓰인다. 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主張(주장)’이 형태 변화 없이 독립적으로 동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체계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발달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어가 서술어 명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고 어순 및 문맥에 더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된다.

(2) 논항표지의 차이점

기존의 논항구조에 대한 대조 연구는 적지 않은데 대부분은 한·중 서술성 명사의 논항구조 대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 논항표지의 기능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예를 들어, 사이치(2015)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논항구조를 동일한 경우,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우,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논항표지 차이점에 대한 분석하겠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가 핵인 명사구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의미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논항이 취하는 논항표지를 선정해야 한다.¹⁸⁾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논항이 이용할 수 있는 표지는 ‘-의’가 일반적인 의미역을 표현할 수 있다. 논항표지 중에서 ‘-의’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사용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문법 요소이다. 한국어의 논항표지 ‘-의’와 중국어의 논항표지 ‘-的’는 형태적으로 대응되지만 서로 다른 언어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기능과 문법적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본고는 한국어의 논항표지 ‘-의’와 중국어의 논항표지 ‘-的’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보고자 한다.

- (29) ㄱ. 사회의 개혁
 ㄴ. 사회 개혁
 ㄷ. 능력의 강화
 ㄹ. 능력 강화

18) 노명희, 「한자어 서술성명사의 구성성분과 논항 구조」, 『국어학』 제111권, 국어학회, 2024. p. 77-108.

- (30) 가. 아버지의 추억
 나. *아버지 추억
 다. 아군의 역공
 라. *아군 역공
- (31) 가. 사회의 개혁 사회가 개혁되다.
 나. 과학의 연구 과학이 연구되다.
- (32) 가. 지도자의 능력 강화
 나. *지도자의 능력의 강화

(29)에서 ‘-의’의 통합 여부는 문법적 의미에 변화가 없다. (29나, 르)에서 ‘-의’를 생략할 경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의’가 없으면 문법적 의미도 상실된다. 이는 (30나, 드)에서의 한국어 서술성 명사 ‘개혁, 강화’가 동시에 ‘-하다’, ‘-되다’와 결합되어 ‘-하다’를 붙이면 타동사가 되고 ‘-되다’를 붙이면 자동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가, 드)에서의 한국어 서술성 명사 ‘추억’과 ‘역공’은 ‘-하다’와 결합하면 동사만 구성할 수 있어서 (30나, 르)에서 보는 것처럼 비문이 된다. (31)에서 ‘-의’는 표기성이 강하며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의’와 통합하여 실현된다. (31가, 르)앞에 주체를 붙이면 이때의 표기 ‘-의’는 주체의 뒤에 붙는다. 한편 논항표지 ‘-의’의 실현은 한국어 서술성 명사 뒤에 연결된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32가)에서 보는 것처럼 ‘-하다’ 또는 ‘-되다’의 결합하는 한국어 서술성 명사 ‘강화’가 서술성 명사구에서 동시에 이어지는 나타날 수 있다면 ‘-의’가 생략되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 서술성 명사가 의미상 주어를 포함하는 경우, 논항표지 ‘-의’의 생략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 (33) 가. 법률의 요구
 나. 현지의 계획
 다. 하은의 결정

19) 본문 (33-35)의 예문은 노명희(2024)에서 인용하였다.

- (34) ㄱ. *법률 요구
 ㄴ. *현지 계획
 ㄷ. *하은 결정

- (35) ㄱ. 하은의 중국 진출 결정
 ㄴ. *하은의 중국 진출의 결정

(33)에서의 ‘요구’와 ‘계획’은 한국어 서술성 명사인데,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의’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 (34)에서와 같이 문장이 비문이 된다. 따라서 (33ㄱ)에서의 ‘요구’는 의미상 주어 논항인 ‘법률’은 통사적으로 ‘법률’로 실현되어야 하며, (33ㄴ)에서의 ‘계획’의 의미상 주어 논항인 ‘현지’는 논항표지 ‘-의’와 결합한 ‘현지의’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35)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상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35ㄱ)처럼 ‘-의’와 결합하지 않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며 문법적으로 명사구를 형성한다.

기존 연구에서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로 구성된 並列結構(병렬구조), 述賓結構(술빈구조), 偏正結構(편정구조), 述補結構(술보구조)에서 ‘-的’의 사용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해 언어학계에서는 두 가지 반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的’가 구조적 명확성과 의미 해석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특히 偏正結構(편정구조)에서 수식 관계를 명시화하는 데 ‘-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吳早生, 郭云丁, 2018). 반면, 두 번째 관점은 ‘-的’가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한 선택적 요소라는 입장이다. 熊仲儒(2005)은 화용론적 맥락과 언어 경제성 원리에 따라 ‘-的’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述賓結構(술빈구조)와 述補結構(술보구조)에서 ‘-的’의 강제성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劉肖蓮(2021)은 전자가 내포된 논항 관계를 명시화하기 위해 ‘-的’가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 보어의 성격에 따라 유연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본고는 두 번째 관점에 동의하며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로 구성된 並列結構(병렬구조), 述賓結構(술빈구조), 偏正結構(편정구조), 述補結構(술보구조)에서 ‘-的’의 존재가 강제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는 주장

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의 앞에 ‘-的’의 실현 양상을 보인다.

- (36) ㄱ. 语法研究
→문법 연구
ㄴ. 语法的研究
→문법의 연구
ㄷ. 质量检查
→품질 검사
ㄹ. 质量的检查
→품질의 검사
- (37) ㄱ. 名誉侵权
→명예 침권
ㄴ. 名誉的侵权
→명예의 침권
ㄷ. 电气加热
→전기 가열
ㄹ. 电气的加热
→전기의 가열
- (38) ㄱ. 投资预算
→투자 예산
ㄴ. 投资的预算
→투자의 예산
ㄷ. 研究计划
→연구 계획
ㄹ. 研究的计划
→연구의 계획
- (39) ㄱ. 规则修改
→규칙 수정
ㄷ. 规则的修改
→규칙의 수정

(36)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로 구성된 並列結構(병렬구조)의 예문이다. (36)에서의 ‘語法(문법)’과 ‘研究(연구)’, ‘質量(품질)’과 ‘檢查(검사)’가 대등한 관계로 형성된 구조이다. (36ㄱ)에서의 ‘-的’가 없어도 명사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36ㄴ)에서의 ‘-的’와 결합하면 소유나 속성 관계가 더 명확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6ㄷ, ㄹ)에서도 같은 특징을 확인한다. (37)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로 구성된 술빈구조(述賓結構)의 예문이다. (37ㄱ)에서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 ‘侵權(침권)’이 목적어 ‘名譽(명예)’를 직접 지배하는 술빈관계를 형성하며 법률 용어에서 자주 쓰이며 ‘-的’가 없어도 의미 전달이 명확하다. (37ㄴ)에서의 ‘-的’를 붙여 동작과 대상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생략해도 된다. (37ㄷ, ㄹ)에서도 마찬가지다. (38)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로 구성된 述補結構(술보구조)의 예문이다. (38ㄱ)에서의 ‘投資(투자)’와 ‘預算(예산)’는 사이의 소유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동시에 경제 용어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며 ‘-的’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는 (38ㄷ, ㄹ)에서도 적용된다. (39)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로 구성된 述補結構(술보구조)의 예인데 (39ㄱ, ㄷ)에서의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 ‘修改(수정)’과 보어 ‘規則(규칙)’으로 구성된 구조이다. (39ㄴ)에서의 ‘-的’를 통해 동작과 결과의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되지만 맥락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다. 또한, 중국어에서 ‘動名詞(동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的’가 생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사 앞에 붙이는 경우에서 논항표지 ‘-的’ 있는 여부에 따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보인다²⁰⁾.

- (40) ㄱ. 調查的報告
→ 조사의 보고
ㄴ. 調查報告
→ 조사 보고

- (41) ㄱ. 報告的結果

20) 본문 (40-41)의 예문은 許菊(2007)에서 참고하였다.

→보고의 결과
 ㄴ. 报告结果
 →보고 결과

(40)에서의 중국어 ‘動名詞(동명사)’ ‘報告(보고)’는 명사의 수식을 받아서 ‘-的’가 생략하다. (41-ㄱ)에서의 명사구는 ‘A를 B와 대비되고 성질이나 용도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인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結果(결과)’는 ‘報告(보고)’의 요구하는 결과 상태 역할을 하는 논항으로 실현되며 (41-ㄴ)와 같이 ‘-的’와 통합하지 않을 경우, ‘報告結果(보고 결과)’가 ‘결과A와 결과B를 보고한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구이다. 이때에는 ‘結果(결과)’는 ‘報告(보고)’의 대상 역할을 하는 논항으로 실현된다.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언어의 통사 체계와 문법적 규범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논항표지의 차이는 한국어가 격조사 체계를 엄격히 유지하는 반면 중국어는 어순과 문맥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다²¹⁾.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가 명사의 수식을 받을 때, ‘-的’는 생략이 가능한 것은 중국어가 형태적 변화보다는 의미적 관계를 중시하는 분석적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어의적 복잡성은 유사하지만 실현 방식이 다른 점은 한국어가 교착어 특성을, 중국어가 고립어 특성을 지닌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차이들은 궁극적으로 두 언어가 속한 서로 다른 언어 계통과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문법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21) 刘庆花, 「语块理论在韩语写作教学中的应用」, 『韩国语教学与研究』, 第23期, 2022, p. 41.

22) 马子千, 彭爽, 「韩国学习者复合趋向补语“V+X来”习得情况调查及教学对策」, 『东疆学刊』, 第39期, 2022, p. 124.

4. 결론

한·중 서술성 명사에 대한 논의는 언어 품사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한국 학계에서는 서술성 명사의 정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학계에서는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개념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중국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動名詞(동명사)’와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라는 두 용어 중, ‘動名詞(동명사)’가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정의 및 특성 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는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를 한국어 서술성 명사로 처리하여 수용하고자 하고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한·중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국어의 서술성 명사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본고는 “명사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문장 내에서 술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어로, 의미론적으로 논항을 요구하며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의미적 실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도 동사로 사용될 때 목적어나 보어 등의 논항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문법적·의미적 유사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중국어의 ‘名動兼類詞(명동겸류사)’는 의미 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3장에서는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중국어 ‘動名詞(동명사)’의 대조연구를 분석하였다. 유사점은 통사적 측면에서 한국어 서술성 명사는 서술어로 사용될 때 목적어나 보어 등의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도 동사로 사용될 때 목적어를 취한다. 의미적 측면에서 사건·행위·상태 표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언어의 모두 어의(語義)의 복잡성과 다의성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차이점으로는 주요 논항이 취하는 논항표지의 종류와 통사적 특성에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가 명사의 수식을 받을 때, ‘-的’는 생략이 가능한 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논항표지 ‘-의’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한·중 서술성 명사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언어 간의 대조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중국어의 ‘動名詞(동명사)’를 한국어 서술성 명사와 동일한 범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參考文獻

- 노명희, 「한자어 서술성명사의 구성성분과 논항 구조」, 『국어학』 제111권, 국어학회, 2024.
- 무아흠, 「한·중 술어명사 구문 대조 연구」, 『우리말연구』 제79권, 우리말학회, 2024.
- 서정수, 『현대국어문법론』, 서울:한양대학교출판사, 1996.
- 시아치, 「한·중 서술성 명사의 대조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손열, 「한국어 술어명사의 통사적 특징 - 중국어 ‘動名兼類詞’와 대조를 통해」, 『인문학 연구』 제63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 이선웅, 「술어명사와 동사구의 동질성과 이질성」, 『우리말글』 제38권, 우리말글학회, 2006.
- 이병규, 「국어 술어명사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호승, 「복합서술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語文論集』 제92권, 중앙어문학회, 2022.
- 조용준, 「서술성 명사구의 구조와 논항 실현」,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제4권, 한말연구학회, 1995.
- 최호철, 「국어의 ‘서술성 명사’ 재고」,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50권,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 학술확산연구소, 2020.
- 최은지, 「한국어 학습자의 ‘서술성 명사+ 접미사’구성 어휘의 오류 양상」, 『이중언어학』 제45권, 이중언어학회, 2011.
- 홍재성, 「이동 동사와 기능동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2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997.
- 崔允甲, 「韩语的汉字语汇及动名词和形名词」, 『延边大学学报』, 第4期, 1984.
- 姜银国, 『现代语法论』,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1987.
- 高明凯, 『关于汉语的词类分别』, 上海: 现代汉语参考资料上海教育出版社, 2014.
- 郭锐, 『现代汉语词类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2002.
- 吕叔湘, 「关于汉语词类的一些原则性问题」, 『中国语文』, 第10期, 1954.

- 刘庆花, 「语块理论在韩语写作教学中的应用」, 『韩国语教学与研究』, 第23期, 2022.
- 刘肖莲, 「再谈对“NP的VP”结构的认知」, 『焦作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第37期, 2021.
- 马子千,彭爽, 「韩国学习者复合趋向补语“V+X来”习得情况调查及教学对策」, 『东疆学刊』,第39期, 2022.
- 潘俊,张掬婴, 「主流媒体农业农村政策话语变迁及其演进逻辑—基于《人民日报》(1949—2023年)的文本分析」, 『华侨大学学报』, 第35期, 2024.
- 沈家煊, 「从“演员是个动词”说起—“名词动用”和“动词名用”」, 『当代修辞学』,第31期, 2010.
- 吴早生,郭云丁, 「也谈“NP+的+VP”偏正结构」, 『语言科学』, 第17期, 2018.
- 熊仲儒, 「以“的”为核心的 DP 结构」, 『当代语言学』, 第2期, 2005.
- 许红花, 「HSK甲级词中的兼类词研究」,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2004.
- 许菊, 「汉语动结合成词的论元结构」, 『江西农业大学学报』, 第6期, 2007.

Abstract

Contrast Study of Descriptive Nouns betwee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Relevance of Chinese ‘verbs and nouns’ with Strange

Yin Shuji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escriptive nouns in Korean and Chinese and discovers that the descriptive nouns in Korean are particularly closely related to the ‘verbs and nouns’ in Chinese. It aims to clar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descriptive nouns and Chinese ‘verbs and nouns’ through comparison. The purpose is not only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nouns in Korean and Chinese but also to promote the in depth development of linguistic research. As a result, the similarities are as follows: 1) In terms of syntax, there are argument requiring characteristics; 2) In terms of semantics, the possibility of expressing events, actions, and states has been confirmed.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both languages have the common feature of having semantic complexity and polysemy. The differences are as follows: 1)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argument markers taken by the main arguments and their syntactic characteristics. 2) When Chinese ‘verbs and nouns’ are modified by nouns, the particle ‘-de’ can be omitted, while in Korean, the argument marker ‘-ui’ cannot be omitted.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nouns in Korean and Chinese but also to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methods for cross linguistic contrastive research.

Key words : concept, verbs and nouns, contrasts, descriptive nouns, characteristics.

투 고 일 : 2025. 4. 10. / 심 사 일 : 2025. 4. 15.~ 2025. 5. 15. / 게재확정일 : 2025. 5. 20.